

장성 푸드플랜 국비 49억 확보...전남 유일

11개 패키지 사업 먹거리 생산체계 구축 농업인 소득증대·지역 공동체 활성화

장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 푸드플랜 지원 사업' 공모에서 전남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

장성군은 '2020년 지역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사업'에 선정돼 오는 2024년까지 5년간 116억원(국비 49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역 푸드플랜은 먹거리의 지역 내 생산·소비 연계를 강화하는 종합전략이다. 직매장과 공공 급식을 중심으로 로컬푸드 소비를 촉진해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 농업인 소득 증대, 지역 공동체 활성화 실현 등이 목적이다.

농식품부는 지역 푸드플랜 수립을 완료했거나 수립 중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단위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계획을 평가해 최근 전국 8개 지자체를 선정, 발표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지역 푸드플랜을 시행 중인 지자체는 총 67곳에 이른다.

장성군은 지난 2018년 푸드플랜 기본용역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 지역 푸드플랜 수립을 완료해 지원대상 우선 선정 자격을 확보했다. 이후 공모에 참여해 전국 2위를 차지,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지원 대상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장성군은 앞으로 5년간 푸드플랜 관련 11개 사업을 추진, 농업 전반에 걸쳐 균형 있는 지원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장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 푸드플랜 지원 사업'에 전남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 유두석 장성군수가 남면로컬푸드 직매장을 둘러보고 있다. <장성군 제공>

푸드플랜 참여농가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을 통해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의 공급 비중을 70%까지 높일 계획이다. 또 로컬푸드 직매장을 추가 개설해 오는 2022년까지 300억원 규모의 소비시장을 창출한다.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1500여 중소농업인을 육성한다.

장성군은 이를 위해 지난 4월 농가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을 전담하는 '장성먹거리사업단'을 발족, 마을단위 교육과 참여농가 모집, 작물식재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장성군은 읍을 넘어 농식품부 '2020년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 사업' 선정, '2020년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사업' 선정 등 푸드플랜 사업의 성과를 내고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이번 공모 선정은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오랫동안 준비해온 장성 푸드플랜의 결과물"이라며 "지역민과 함께 '다 같이 잘사는 옐로우시티 장성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기자 노트

함평 군민소통실에 웬 밀실?



황운학 제2사회부 차장

함평군의 민선 7기 후반기를 이끌어 갈 새로운 군수가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새 출발 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선거 과정에서 빚어진 반목과 갈등, 분열된 함평을 위해 군민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며 비서실을 군민소통실로 명칭을 바꾸고 군수실 옆 별도의 사무실에 자리를 만들었다.

특히 29년 동안 전임 군수들이 사용해 온 관사를 폐지하고, 임기 동안 매월 받는 급여 전액을 반납해 인재육성을 위해 장학금으로 기부하겠다고 밝혀 상당한 신선함을 주고 있다.

하지만 취임후 첫 실시한 비서진 인사와 군수실 옆 별도의 군민소통실이 '웬 티'가 되고 있다.

군민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할 군민소통실이 밀폐된 공간에 마련돼 문턱을 넘기 부담된다는 지적이다.

명칭만 군민소통실이지 비서실이나 다름없다. 사무실 내부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밀폐된 공간에 달랑 출입문 하나만이 유일한

외부와의 소통 창구다. 이곳에는 최근 민원봉사과로 인사 발령된 6급 팀장급 1명과 별정 신입 6급 군민소통실장의 자리가 배치돼 있다.

비좁은 소통실 내부에 들어서면 군민소통실장의 개인 밀실로 보이는 칸막이 사무실까지 만들어져 있는 상태다.

군민의 화합과 소통을 강조하며 설 치한 군민소통실이 몇 사람의 자리를 채워주기 위한 공간으로 운영 되어서는 안된다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는 군민의 작은 소리도 경청할 수 있고 내부가 훤히 보이고 군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웬 티'로 보이는 군민소통실 내 별도의 밀실이 꼭 필요한 지 험명한 판단을 기다린다.

"열악한 지역경제를 살리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는 절대 나서지 않겠다"고 강조한 이상의 함평군수의 말처럼 변화하고 잘 사는 새로운 함평 건설을 기대한다.

hwang@kwangju.co.kr

한빛원전 함평피해대책위 공식 출범

지역 피해사항 수집·대책 논의

한빛원전 함평군피해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13일 함평군에 따르면 함평피해대책위는 노후 원전인 한빛원전과 관련해 각종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함평지역 피해 방지와 보상 등을 보장하기 위해 조직됐다.

김한기 함평군보안위원장, 임재훈 함평군농업경영인연합회장 등 지역사회단체 간부급 10여 명은 지역 상가에서 1차 준비모임을 갖고 김성모 법무부 범죄피해자함평군지부장을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들은 투자유치 저해, 귀농·귀촌 기피, 농축·특산물 피해 등 한빛원전으로 인한 각종 지역 피

해 사항들을 확인하고 관련 요구사항과 대책 등을 논의했다.

김성모 대책위원장은 "함평은 한빛원전 가동 34년 동안 여러 위협요소가 산재해 있음에도 지역 간 화합을 위해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각종 대책 수립 과정에서 우리 지역이 철저히 소외당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는 타협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전 특성상 한번 사고가 나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이제는 우리의 목소리를 분명히 전달해야 할 때"라며 "앞으로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지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kwangju.co.kr

강진군, 목요일 여권 야간 발급 서비스 오늘 재개

거동불편자 가정에 배달도

강진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잠정 중단했던 여권 방문 배달제와 야간 여권 발급 서비스를 14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여권 방문 배달제'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신규 시책으로 여권을 발급한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장애인, 교통불편지역 거주자, 임산부를 대상으로 여권 배달을 희망하

는 사람에게 무료로 가정에 배달하는 민원 서비스다.

'여권 야간 연장 근무'는 업무시간 내 여권 발급이 어려운 학생·직장인 등을 위해 매주 목요일에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여권 발급 업무를 연장 운영한다.

강진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다양한 민원시책을 발굴해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강진군, 지역발전 모색 정책자문단 출범

지역 출신 전문가 38명으로 구성 행정복지 등 4개 분과 정책자문 단장에 차용훈 조선대 교수



지난 12일 강진 출신 전문가와 전직 공직자 38명으로 구성된 '강진군 정책자문단'이 출범했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이 지역 출신 전문가 38명으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했다. 이들은 행정복지, 문화관광, 농림수산, 지역개발 등에 대한 정책 제안과 컨설팅으로 강진 발전의 밑거름 역할을 하게 된다.

강진군은 지난 1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정책자문단 출범회의를 열고 4개 분과 38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문단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강진 출신 전문가와 전직 공무원들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각종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군정 전반에 대해 현실성 있는 정책 제안과 컨설팅을 하게 된다.

자문단은 단장을 중심으로 행정복지, 문화관광, 농림수산, 지역개발 등 4개 분과로 운영된다. 분과 자문위원들은 2년의 임기 동안 강진군의 요청에 따라 담당 분야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정책자문, 정책제안, 정책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자문단장은 차용훈 조선대 교수가 맡았다.

이날 출범회의는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 단장 선임, 군정 브리핑, 자문단 운영 계획, 현장방문 순으로 진행됐다. 자문위원들은 민선 7기 군정 방향과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들으며 공유했다. 강진만생태공원에서 이뤄진 현장방문에서는 강진만 권 종합개발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자문단장으로 선임된 차용훈 교수는 "강진을 아끼는 마음으로 고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

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자문활동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자문위원들이 지역 사정에 밝고 전문성이 높아 강진군의 씬크 탱크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현안 해결과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활발한 자문으로 더불어 행복한 강진 건설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G.O.Auction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건 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건 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물건

의료시설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토지 : 17079㎡(5166.4평) 건물 : 9059.72㎡(2740.6평)
감정가 : 7,913,565,060원 최저가 : 4,431,597,000원(56%)

다세대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무등산이스트리
전용 : 176.4㎡(53.4평) 대지권 : 313.59㎡
감정가 : 559,000,000원 최저가 : 391,300,000원(70%)

다세대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트라운하임
전용 : 243.2㎡(73.6평) 대지권 : 622.57㎡(188.3평)
감정가 : 960,000,000원 최저가 : 672,000,000원(70%)

아파트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삼익세라믹
전용 : 125.95(38.1평) 대지권 : 71.37㎡(21.6평)
감정가 : 381,000,000원 최저가 : 266,700,000원(70%)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